

일부 시 지역 고교생 · 학부모 · 교사들의 성의식 조사

임 미 립* · 양 순 옥** · 이 광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의식을 위하여 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는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견해가 양립해 오며 논란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년 10시간씩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제 성교육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할 인간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육의 목표와 이를 뒷받침 할 교육 방법에 대하여는 사회, 문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금기시 해 온 우리의 오랜 문화적 배경을 뒤로하고 이제 청소년 성교육의 동반자로 서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천편 일률적인 남성위주의 성과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순결 중심의 성교육터널을 거쳐온 교사·학부모들은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을 벗어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청소년들은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우리의 성문화가 양산해 내는 음란하고 과장된 성의 상품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함께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수되지 않은 성의 정보와 대부분 또래집단의 한정된 교류를 통해 성을 학습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이야기거리로 삼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떠올랐고, 이러한 문제앞에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들은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청소년·교사 학부모들이 성교육을 중심으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 기초자료로 일부 시지역 고교생·교사·학부모 성 의식 조사를 하게 되었다. 본 조사를 계기로 고교생·교사·학부모들이 서로의 성문화와 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편견없이 들여다보고 또한 각 계층간의 격차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학부모가 청소년들과 의식의 격차를 줄이고, 성교육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설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 동우대학 간호과 조교수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집단의 성의식,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집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수용도를 알아본다.
- 3) 대상집단의 성교육 경험과 방향을 파악해 본다.

II. 문헌 고찰

1. 성

인간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창조되므로 인간의 성(sexuality)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sexuality)은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 데 인간 존재의 질,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친숙한 느낌, 인간의 전체성, 자신을 성적 존재로 인지하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sexuality)이라는 용어는 성교라는 생리적 활동을 나타내는 성(sex)이라는 단어보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나타내며, 성(sexuality)은 인간의 전체 인격의 심도깊은 양상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성(sex)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것은 또한 자아상 즉 남자라는 점 내지 여자라는 점을 표현하는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성은 성욕을 말하기도 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른바 성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 개인을 남과 여로 구별하는 많은 차이 중의 단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성(sexuality)이란 침실이나 밤, 나아가서는 신체의 일부분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 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곳 어느 곳이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인간의 성(sexuality)은 동일화되고 활동이며 충동이고 생물학적, 정동적인 과정이며 하나의 견해이고 자기 표현인 것이다.

성은 잘하면 훌륭한 성과를 가져오지만 생활 전체를 망가뜨리든가 혼란시키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성은 사회적 개인적 신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신념이나 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America의 사회, 1982).

성이란 결국 접촉, 부드러움, 사랑에 대한 욕망, 남성, 여성과 같은 성별 및 인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여 전 생애 주기 동안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으로 존재하고, 행해지고, 보고, 믿는 삶의 근원인 것이다(이, 양 & 임, 1998).

2. 성태도와 성의식

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습득된 성 지식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에는 물론 결혼 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이운선, 1987).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태도는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전한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김미주, 1997).

정아영(1991)은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남녀간에 이중적인 성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인자(1994)의 연구에서는 성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중 '혼전 임신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에 대해 12.1%, '결혼 전 유산'에 대해 50.7%, '결혼 후 유산'에 대해 31.2%, '남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22.8%, '여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17.6%, '남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11.2%,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4.8%가 매우 찬성 내지는 찬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임신의 책임 소재'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혼전 성관계와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박영신(1988)은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관계가 적었고, 성에 대한 고민이나 이성교제 경험도 적었으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일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더 보수적이었다고 하고, 이것은 성에 대한 가치관과 성교육 여부가 얼마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라고 진술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도구

일개 시 3개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341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9명, 초·중·고 교사 24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유형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 수거

하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7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70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 분석하였다.

남자 50.7%(173명), 여자 49.3%(168명)이며, 무교가 52.2%(178명), 기독교 44.6%(152명)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는 독자가 39.9%, 맏이가 28.4%, 막내 20.8%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청소년 스스로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5.2%, 떨어지는 편 42.0%, 잘하는 편이 11.4%의 순이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교생 성의식 결과

1. 고교생의 일반적 특성

고교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 고교생들의 성의식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색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청소년들은 61.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의 문항에서는 37.5%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44.6%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성'이 학생들에게 특수

<table 1> sexual awareness for teenagers

item	scale	totally not	not	common	yes	very yes
sexual awareness		*208 (61.0)	36 (10.6)	35 (10.3)	53 (15.5)	9 (2.6)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76 (22.3)	76 (22.3)	*128 (37.5)	57 (16.7)	4 (1.2)
sexual curiosity in puberty		56 (16.4)	*126 (37.0)	109 (32.0)	47 (13.8)	3 (0.9)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7 (2.1)	5 (1.5)	50 (14.7)	*200 (58.7)	79 (23.2)
man have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woman		12 (3.5)	9 (2.6)	66 (19.4)	*187 (54.9)	67 (19.6)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himself		24 (7.0)	21 (6.2)	77 (22.6)	*163 (47.8)	56 (16.4)
masterbation is possible for man and not possible for female		20 (5.9)	27 (7.9)	74 (21.7)	*182 (53.4)	38 (11.1)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woman		83 (24.3)	*114 (33.4)	94 (27.6)	36 (10.6)	14 (4.1)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man		23 (6.7)	25 (7.3)	67 (19.6)	*132 (38.7)	94 (27.6)
it is possible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a lover in adolescence		39 (11.4)	30 (8.8)	83 (24.3)	*120 (35.2)	69 (20.2)
it is necessary to keep premarital virginal purity for a happy married life		71 (20.8)	*104 (30.5)	94 (27.6)	40 (11.7)	32 (9.4)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abortion is the best		19 (5.6)	62 (18.2)	*108 (31.7)	100 (29.3)	52 (15.2)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40 (11.7)	70 (20.5)	84 (24.6)	*102 (29.9)	45 (13.2)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21 (6.2)	48 (14.1)	81 (23.8)	*148 (43.4)	43 (12.6)
total				341(100)		

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서는 37.0%의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렇다고 대부분 긍정 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 자신은 스스로의 성적인 호기심에 대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성이란 인간 욕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 대해서는 58.7%가 그렇다, 23.2%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여 사춘기에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나 '성'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4.9%가 그렇다, 19.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녀간 성충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음' 문항에서는 47.8%가 그렇다고, 16.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충동은 개인이 억제하거나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된다.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문항에서는 53.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부모, 교사 연구결과와 대치된다.

'여성의 순결은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3.4%가 그렇지 않다, 24.3%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반면, '남성의 순결은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8.7%가 그렇다 라고 27.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기존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학부모, 교사들은 대부분 남성, 여성의 순결의 중요성에 강한 긍정(그렇다)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의 성에 대한 의식, 특히 순결의식에 강한 세대차를 부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라는 항목에서는, 학생들은 35.2%가 그렇다, 20.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부모, 교사 세대와는 다른 성의식을 보여준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혼전 순결은 지켜야 함'이

라는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30.5%가 그렇지 않다, 20.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최근 청소년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교사들은 대부분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역시 위 문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순결에 대해 부모와 교사 세대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문항에서는 31.7%가 그저 그렇다, 29.3%가 그렇다, 15.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도 23.8%나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간생명 존엄, 사회 경제적 독립 같은 가치들을 생각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태가 최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29.9%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학부모, 교사들의 생각과 일치하였으나, 32.2%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의 잘못된 관념들을 성교육을 통해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3.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최초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때를 학생들은 중학교(34.0%), 초등학교 고학년(20.2%), 초등학교 저학년(19.1%)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시기로 꼽고 있는 데 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 한 내용은 성충동(자위)(63.9%),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27.0%)가 다수였는데, 정작 학부모와 교사들이 최초로 실시한 성교육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 이성교제 같은으로 성충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

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은 음란물(비디오, 잡지)을 통해서가 41.1%로 가장 많았고, 학교교육(14.1%), 부모(13.5%), 형제자매(11.4%) 순이었다. 성에 대한 지식의 통로가 음란물로부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초 월경(몽정)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38.4%, 초등학교 6학년 18.5%, 초등학교 3학년 15.0%, 중학교 때도 13.8%나 되었다.

최초로 월경(몽정) 경험 했을 때의 기분은 그저 그랬다는 대답이 41.6%,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했다는 대답이 29.0%,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대답도 10.9%였다.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뻐했다는 응답은 8.5%였다.

성충동을 처음 느낀 때는 중학교 46.3%, 고등학교 18.8%였고, 느낀적 없는 경우도 17.9%였다. 학부모와 교사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는 음란 매체를 접했을 때 33.7%, 영화, 소설 속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았을 때 33.4%,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보았을 때 19.3%였다. 학생들에게 음란매체나 음란 비디오, 소설 등은 성충동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욕구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성충동 해소 방법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3.1%, 운동이나 취미활동 13.8%, 음란 비디오나 서적을 봄 11.4%로 나타났다. 학부모나 교사들도 학생들의 해소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성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학생이 78.0%로 더 많았고 있는 학생은 22.0%였다.

이성친구와 신체접촉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키스 45.2%, 껴안기 21.4%, 손잡기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나 교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친구와 신체접촉 경험은 56.6%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43.4%가 없다고 하였다. 신체접촉 경험한 범위는 손잡기 15.8%, 키스 14.7%, 껴안기 10.9%의 순이었다.

신체접촉 후 느낌은 기분 좋음 23.4%, 상대방과 가까워짐 22.3%, 부끄러움 9.9%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고민 경험은 이성교제 31.1%, 성충동 7.3%, 월경(몽정)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고민시 누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또래집단 47.5%, 친인척, 선배 7.0%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실제 부모나 교사는 상담이나 도움의 대상이 못 되고 있다.

4.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견해

최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때에 대한 질문에서는, 33.8%가 학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4.0%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고 응답하였다.

성교육을 해 준 교육자는 체육교사 44.6%, 가정교사 39.6%, 보건교사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 내용은 임신과 출산 74.7%,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 50.2%, 사춘기 몸의 변화 29.6%, 이성교제 15.3%로 나타났다.

최초로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시기는 받은적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44.0%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24.9%, 고등학교 15.5%, 초등학교 저학년 11.7%였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자는 조부모 20.2%, 친인척 12.0%였고 부모나 형제자매는 소수였다. 결과를 통해 가장 훌륭한 성교육자가 될 수 있는 부모는 자녀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내용은 남녀 신체구조, 기능 31.9%, 사춘기 몸의 변화 16.4%가 우세하였다. 이것은 학부모, 교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비슷한 주제의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가정에서의 성교육 만족 여부는 불만족이 32.3%로 만족(19.6%)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들은 가정,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학교, 가정 성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부정적 입장에서 가르치므로가 74.2%, 윤리적 도덕적이므로 15.0%, 구체적이지 않아서 8.8%였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다소 폐쇄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정,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필요한 성교육 내용으로는 성병과 예방책(40.5%), 임신, 출산, 피임(39.9%), 남녀 신체구조 기능(27.5%)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생들의 음란물에 대한 견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은 53.4%가 있다고

대답했고 46.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음란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음란물을 최초로 접한 시기는 중학교가 79.8%로 대부분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도 16.5%나 되어 음란물 접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중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성인용 비디오 48.1%, 인터넷 16.1%, 만화,잡지 11.7% 로 나타나 비디오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폐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란물을 보고 난 후 느낀 죄책감과 후회(56.3%), 별다른 느낌 없음(26.4%), 정신집중 안되고 자주 공상(24.0%), 성충동을 더 자주 느낌(23.4%)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죄책감, 후회, 성충동, 공상, 정신집중 안됨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방해가 가져올 가능성이 예상된다.

음란물의 남녀 성행위에 대한 견해에서는 상품으로 팔기 위한 자극적인 연출(45.1%), 정상적인 남녀 성관계 모습이 아님(42.9%), 성적 쾌감만을 이용하는 비인간적인 모습(29.1%)이라고 대다수가 응답하여 학생들은 대부분 음란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고교생의 부모와의 관계

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47.8%),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내 이야기는 무시한다고(27.6%) 표현하였다.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응답과는 상반된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20.8%에서만 평등한 관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하였다.

2) 학부모의 성의식 결과

1.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28.6%(34명), 여71.4%(85명)로 여자학부모가 조사에 많이 참여하였고, 종교는 불교 33.6%, 무교 31.9%, 기독교 25.2%, 천주교 9.2%로 나타났다. 사찰이 많고 전통적 농업과 어업을 주로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자녀형태는 아들 1 딸 1가 48.7%로 가장 많았고, 딸

2 18.5%, 아들 2 딸 2 10.9% 순이었다.

2. 학부모들의 성의식

학부모들의 성의식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색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1.2%가 그저 그렇다, 31.9%가 그렇지 않다, 12.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13.4%와 0.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성인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특별하거나 꺼려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55.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최근 성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문항에서는 7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해 부모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성이란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 대해서는 76.5%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의 문항에서는 57.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음'의 문항에서는 74.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문항은 5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자위행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순결은 중요,'남성의 순결은 중요' 문항에 대해서는 둘 다 각각 50.4%, 47.9%로 그렇다고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성의식에서 여전히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 42.0%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시기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항목의 결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55.5%, 19.3%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인 최선'의 문항은 43.7%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4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폭력은 어

대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5.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학부모들이 낙태에 대한 위협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아마도 미혼의 어린 자녀의 장래를 신체적인 위협보다 더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성폭력의 책임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희석되었음을 나타낸다.

3. 학부모들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견해

자녀 성교육 경험은 49.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없는 경우는 50.4%이다.

최초 성교육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가장 많았고(21.8%), 중학교 11.8%,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10.1%로 나타났다. 실시한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춘기 몸의 변화(몽정, 월경)이 22.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임신과 출산(9.2%), 순결(5.9%), 이성교제(5.9%) 등의 순이었고, 성병과 예방책, 성충동 및 성관계,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피임, 낙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필요한 성정보로는 이성교제(18.8%),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18.3%), 순결(15.3%),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14.9%)가 가장 많았다. 이는 손쉽게 부모님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교육이 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없이 실시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성에 대한 대화를 자녀들과 나누게 되는 때는 뉴스 등 방송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가 13.4%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성에 대해 질문할 때(10.1%), 생활 속에서 항상(9.2%)의 순이었다. 부모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에 대한

(table 2) sexual awareness for parents

item	scale	totally not	not	common	yes	very yes
sexual awareness		15 (12.6)	38 (31.9)	*49 (41.2)	16 (13.4)	1 (0.8)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14 (11.8)	*66 (55.5)	22 (18.5)	17 (14.3)	0 (0)
sexual curiosity in puberty		1 (0.8)	9 (7.6)	8 (6.7)	*90 (75.6)	11 (9.2)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8 (6.7)	12 (10.1)	*91 (76.5)	7 (5.9)	1 (0.8)
man have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woman		2 (1.7)	18 (15.1)	20 (16.8)	*68 (57.1)	11 (9.2)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himself		2 (1.7)	18 (15.1)	*89 (74.8)	9 (7.6)	1 (0.8)
masterbation is possible for man and not possible for female		16 (13.4)	*64 (53.7)	26 (21.8)	10 (8.4)	3 (2.5)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woman		2 (1.7)	5 (4.2)	18 (15.1)	*60 (50.4)	34 (28.6)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man		3 (2.5)	8 (6.7)	24 (20.2)	*57 (47.9)	27 (22.7)
it is possible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a lover in adolescence		*44 (37.0)	*50 (42.0)	15 (12.6)	9 (7.6)	1 (0.8)
it is necessary to keep premarital virginal purity for a happy married life		0 (0)	10 (8.4)	20 (16.8)	*66 (55.5)	23 (19.3)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abortion is the best		10 (8.4)	26 (21.8)	18 (15.1)	*52 (43.7)	13 (0.9)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4 (3.4)	23 (19.3)	24 (20.2)	*54 (45.4)	14 (11.8)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5 (4.2)	24 (20.2)	11 (9.2)	*54 (45.4)	25 (21.0)
total				119(100)		

대화 빈도는 가끔 26.1%, 생활 속에서 항상 11.8%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목적은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전한 이성교제(18.5%)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자녀의 태도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24.4%)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관심있어 하나 쑥스러워 하는 편도 16.8%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에 대한 대화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문항에서는 변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4.4%, 솔직해짐이 17.6%로 성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유도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떻게 얘기할 지 몰라서(16.8%)라고 응답하였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므로 라는 응답도 15.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성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 생각된다.

4.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적극 찬성하지는 않으나 자녀가 원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6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대는 불과 19.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세대의 세대교체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교제 찬성이유는 친구의 범위에 남녀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19.3%, 억압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산 유도 18.5%, 사춘기에 이성에 끌리는 것은 당연 16.0%, 자녀에게 인생 경험의 기회 제공 13.4%로 나타나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자녀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허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52.1%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손잡기, 어깨동무하기 등은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몸만지기라든지, 성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0%)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의 결과에서 사랑하면 성교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도 부모세대의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이성교제 시 부모생각 범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학부모들은 책임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성교육을 하겠다 가 38.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걱정되지만 자녀를 믿는다는 대답도 다

음 순위인 11.8%였다. 억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교육과 신뢰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최근 부모세대들의 교육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교제로 자녀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42.0%가 낙태를 권유하고 있고, 22.7%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이성교제 반대 이유는 아직 이르므로 성인이 된 후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1.2%의 학부모들이 응답하였고, 18.5%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응답하였다.

5. 자녀의 성적 관심과 성성숙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

최초로 자녀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38.7%가 질문을 받아 본 적 없다고 대답하였고,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16.8%, 16.0%, 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성에 대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35.3%), 임신과 출산(28.5%), 이성교제(18.5%),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 여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설명(38.7%)하였고, 부끄러웠지만 아는 대로 설명(38.7%)하였다고 응답하여 자녀들의 질문에 부모들이 성의껏 대답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29.4%, 이성교제 29.4%로 나타난 반면, 성충동 및 성관계(1.7%), 피임, 낙태(1.7%), 성병과 예방책(1.7%),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4.2%) 등의 내용은 거의 설명하기 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대화시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은 성충동 및 성관계(37.0%), 성병과 예방책(14.3%), 피임, 낙태(13.5%),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경험해본 사춘기 몸의 변화나 이성교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편안해 하는 반면, 부모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설명하기 쑥스러운 내용은 성충동, 성관계, 성병과 예방책, 피임, 낙태, 성폭력 예방 등의 주제는 자녀를 상대로 교육하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문적 교육이 학교나 전문적 기관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녀가 성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고 응답한 부모가 48.7%로 대부분 자녀들의 성충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처음으로 성충동을 느낀 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중학교가 42.0%, 고등학교가 29.4%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도 13.4%를 차지하여 점차 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충동이나 성에 대한 의식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학부모들의 자녀의 성충동 해소 방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41.2%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한다고 대답하였고, 22.7%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여 건전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고민 상담 대상은 친구 37.8%, 부모가 33.6%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상담 대상은 친구 다음으로 부모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또래집단이나 선배, 친척 등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으며 부모는 상담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은 상담 대상에 친구, 학부모, 전문상담기관이라 생각하여 세 집단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성고민 대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6. 학부모들의 성교육 방향

학부모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 혹은 필요하다고 95.0%가 응답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성교육자로는 사회단체 및 전문가 32.8%, 부모가 함께 31.1%, 동성의 부모 22.7%, 교사 10.9%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학부모 자신들로 이상적인 성교육자를 찾고 있다. 이것은 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성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36.1%, 유치원 24.4%, 초등학교 저학년 18.5%로 나타나 6세에서 12세 사이에 양질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교육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33.6%, 성충동 및 성관계 28.6%, 임신과 출산 26.9%, 이성교제 24.4%로 나타나 부모들은 사회 문화적인 성교육보다는 신체 생리적인 성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학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설문 조사에 응한 학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참고로 살펴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등한 관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눔 78.2%,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눔 16.0%,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 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화의 빈도나 정도는 예측할 수 없으나 비교적 자녀와 대화를 잘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교사의 성의식 결과

1.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2.5%, 여자가 67.5%였고, 20대 9.1%, 30대 50.2%, 40대 33.7%, 50대 5.4%, 60대 1.6%로 나타났다.

근무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2.5%, 중학교 34.6%, 고등학교 32.9%로 나타난다.

2. 교사들의 성의식

“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색하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35.8%,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21.0%가 응답하여 학부모의 응답과 일치하였다. ‘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50.6%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교사들 역시 학부모들처럼 성에 대해 큰 거부감없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매스미디어에서 성에 대해 자주 거론하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의 문항에서는 66.3%가 그렇다, 29.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이란 인간 욕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도 67.5%가 그렇다, 2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에 대한 인간 이해와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 교사들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의 문항에서는 57.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녀 성충동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성의식의 결과와도 매우 동일하다. ‘성충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음’의 문항에서는 7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

여 인간 스스로 성충동은 자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됨' 문항은 5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자위행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순결(56.8%), 남성의 순결(57.2%)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교사들은 특히 순결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0%가 그렇지 않다, 38.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응답과 맥을 같이 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40.3%, 14.8% 대부분의 교사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문항은 42.8%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5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7.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교사들이 낙태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아마도 미혼의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신체적인 위협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음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에 대한 조사 결과와 완전 일치한다. 성폭력의 현상은 항상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교사들은 대부분(37.4%) 이해하고 있다.

3. 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성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의 62.1%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37.9%가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고 있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성교육을 학

(table 3) sexual awareness for teachers

item	scale	totaly not	not	common	yes	very yes	no answer
sexual awareness		51 (21.0)	*87 (35.8)	67 (27.6)	36 (14.8)	0 (0)	2 (0.8)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47 (19.3)	*123 (50.6)	53 (21.8)	18 (7.4)	1 (0.4)	1 (0.4)
sexual curiosity in puberty		0 (0)	6 (2.5)	5 (2.1)	*161 (66.3)	71 (29.2)	0 (0)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0 (0)	3 (1.2)	17 (7.0)	*164 (67.5)	58 (23.9)	1 (0.4)
man have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woman		8 (3.3)	34 (14.0)	37 (15.2)	*140 (57.6)	23 (9.5)	1 (0.4)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himself		2 (0.8)	6 (2.5)	16 (6.6)	*171 (70.4)	47 (19.3)	1 (0.4)
masterbation is possible for man and not possible for female		60 (24.7)	*137 (56.4)	37 (15.2)	8 (3.3)	1 (0.4)	0 (0)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woman		7 (2.9)	24 (9.9)	33 (13.6)	*138 (56.8)	40 (16.5)	1 (0.4)
virginal purity is important for man		6 (2.5)	19 (7.8)	39 (16.0)	*139 (57.2)	38 (15.6)	2 (0.8)
it is possible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a lover in adolescence		94 (38.7)	*119 (49.0)	21 (8.6)	8 (3.3)	1 (0.4)	0 (0)
it is necessary to keep premarital virginal purity for a happy married life		10 (4.1)	40 (16.5)	59 (24.3)	*98 (40.3)	36 (14.8)	0 (0)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abortion is the best		11 (4.5)	55 (22.6)	46 (18.9)	*104 (42.8)	22 (9.1)	5 (2.1)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1 (0.4)	21 (8.6)	57 (23.5)	*123 (50.6)	41 (16.9)	0 (0)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3 (1.2)	38 (15.6)	37 (15.2)	*91 (37.4)	71 (29.2)	3 (1.2)
total					243(100)		

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한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14.0%), 이성교제(11.9%), 임신과 출산(9.1%), 남녀 성기관의 구조, 기능(7.0%), 남녀 평등교육(7.0%)의 순이었다. 이것은 학부모의 조사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필요한 성정보로는 성차별, 남녀평등 17.3%,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16.9%, 이성교제 13.1%,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 13.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신체적 인성에 대한 정보보다는 심리, 사회적인 성에 대한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통해 성관련 내용을 다룰 때(25.9%)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학부모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질문시(8.6%)라는 대답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사들의 성교육의 목적은 학부모 성교육의 목적과 일치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이라고 40.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진정한 이성교제를 위하여'라는 대답이 12.8%를 차지하였다.

성교육 시 학생들의 태도는 질문은 하지 않으나 호기심을 갖고 집중(30.0%)하며, 진지하고 적극적인 질문을 한다(20.6%)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절대적이고 존경받는 교사의 교육적 분위기가 이러한 진지한 성교육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같다. 성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가장 많은 수인 19.3%의 교사가 성교육하기에 전문적 지식,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성교육 기회조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교육환경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4. 이성교제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도

교사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적극 찬성하지는 않으나 학생이 원하면 반대 안함이라는 응답이 75.7%로 학부모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성교제 찬성 이유는 억압보다는 자연스런 자기 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32.5%), 친구의 범위에 남녀 제한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30.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강요나 억압보다는 자율 속에서 책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교제시 신체접촉 허용정도는 손잡기, 어깨동무하기가 69.5%이고, 껴안기(13.6%), 키스(4.1%), 몸만 지기(0.4%), 성교(0%)는 아주 경미한 숫자로 나타나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을 벗어난 신체접촉은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시 교사 생각 범위 이상의 신체접촉을 학생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성교육을 하겠다는 대답이 77.8%였다. 이는 학부모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성교제로 청소년의 임신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39.1%가 낙태를 권유하고, 38.3%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에서는 낙태가 훨씬 우세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교사에서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성과 낙태가 거의 동수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인 교사와 학부모간 다소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반대 이유로는 성문제를 야기(19.3%)하고, 아직은 이르기 때문(14.4%)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부모와는 학생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결과에서는 '성문제 야기'라는 대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5. 학생의 성적관심과 성 성숙도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경험이 있는 경우 62.1%로 훨씬 많고 37.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학부모보다는 교사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가장 자주 받는 성에 대한 질문은 이성교제(20.6%), 성충동 및 성관계(15.6%),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12.3%), 임신과 출산(8.2%), 성차별, 남녀평등(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했는지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잘 설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36.6%로 가장 많았고, 부끄러웠지만 아는 대로 설명한다고 16.5%로 비교적 성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부모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성에 대한 대화시 교사 입장에서 설명하기 좋았던 내용은 이성교제(25.5%), 성차별, 남녀평등(18.1%), 남녀신체의 구조와 기능(13.2%), 사춘기 몸의 변화(월경, 몽정)(13.2%)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는데, 학부모에서는 성차별,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성에 대한 대화시 교사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으로는 성충동 및 성관계(34.6%), 피임, 낙태(16.1%), 성병과 예방책(16.0%)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학부모의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학생이 성충동(성욕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0.9%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는 48.7%만이 성충동을 느낄 것 같다고 답하고 34.5%의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발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이 처음 성충동을 느낀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중학교(44.9%), 초등학교 고학년(39.9%)이라고 답하여 학부모 대다수가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답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충동 시기를 더 늦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충동 해소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모들은 운동이나 취미활동, 그냥 참을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은 자위(25.5%), 음란 비디오나 서적을 봄(24.7%), 운동이나 취미활동(19.8%), 그냥 참음(14.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은 자위에 5.0%만 응답하여 교사들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교민 상담대상이 친구(37.9%), 상담기관(22.2%), 부모(17.7%)의 순으로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친구(37.8%), 부모(33.6%)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은 상담기관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6. 교사들의 성교육 방향

교사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62.1%), 필요(35.8%)하다고 응답하여 97.9%의 대부분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학부모의 9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한다.

적절한 성교육자로 교사들은 부모가 함께(40.7%), 사회단체 및 전문가(29.2%), 동성의 부모(21.4%), 교사(6.6%)의 순으로 꼽았다. 학부모들 역시 순위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응답을 하여, 학교보다는 가정과 사회단체, 전문가의 역할이 성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교육 시작 시기로는 유치원(39.1%), 초등학교 저학년(30.5%), 초등학교 고학년(26.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성교육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응답하였다. 저명한 성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세로 보고 있는 데, 이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성교육 연령에 대한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들은 성교육시 반드시 다룰 내용으로는 성충동 및 성관계(29.3%), 사춘기 몸의 변화(26.3%), 남녀 신체의 구조, 기능(25.9%),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23.4%), 임신과 출산(20.6%), 성차별, 남녀평등(18.5%), 피임, 낙태(16.9%), 이성교제(15.6%)의 순으로 꼽았다. 학부모에서나 교사들 모두 신적인 성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학부모들은 성교육은 6-12세 사이에 전문가나 학부모가 사춘기 몸의 변화, 성충동, 성관계, 임신, 출산 등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사들 역시 6-12세 사이에 부모나 사회단체, 전문가에 의해 성충동, 성관계, 사춘기 몸의 변화, 남녀 신체구조, 기능, 성폭력, 성희롱 등의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은 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70.0%의 많은 교사들이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4.4%는 학교에 보급된 성교육 책자를 통해 지면 학습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적인 성교육 과정을 받은 교사는 불과 4.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사들은 교사 개인의 성에 대한 견해와 의식,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성교육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교사 대상의 전문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참고로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 56.4%가 가능한 수업시간 내에 다양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3.9%가 수업시간 외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3%에서는 학업관련 대화만 나누는다고 응답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이제까지 일부 시 지역 고교생·학부모·교사 성의식과 성교육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성의식, 청소년의 성, 이성교제, 성교육 경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해 보고자 한다.

1. 성의식

학부모와 교사는 성의식 조사에 비슷한 태도를 보였고, 청소년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성'에 대한 느낌, 관심정도에 대하여는 청소년·학부모·교사가 대부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춘기 성적 호기심'에 대하여는 학부모 84.8%, 교사 95.5%가 자연스럽다고 답한 반면 청소년들은 14.7%만이 자연스럽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성이 인간육구의 하나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하여는 청소년 3.6%, 학부모 16.8%, 교사 1.2%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모두 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인간이 지닌 성욕자체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회적 억압으로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남자는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함'에서는 청소년 6.1%, 학부모 16.8%, 교사 17.3%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성충동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훨씬 남녀차별적인 의식이 강함을 볼 수 있다. 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성충동은 청소년(64.2%), 교사(90.2%)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는 8.4%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고, 자위행위에 대하여는 학생 64.5%가 남성은 괜찮으나 여성은 안된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 67.1%, 교사 91.1%가 남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부모·교사에 비해 남녀차별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들이 배워온 성교육매체의 영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비해 학부모·교사는 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순결에 대한 태도는 학부모·교사 모두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청소년은 순결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시기에 성관계를 가져도 됨'에 청소년 20.2%, 학부모 79%, 교사 87.7%가 안된다고 답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혼전순결은 지켜야 함'에 청소년 21.1%, 학부모 74.8%, 교사 55.1%가 그렇다고 답해 청소년과 학부모·교사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 두 문항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다. '청소년 시기 임신'에 대하여 청소년·학부모·교사 모두 낙태를 대부분 선택하였다.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와 책임있는 성관계, 모성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의 거부'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 청소년 순으로 대부분 여성의 거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에 대하여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동안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사회교육과 시민 홍보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의 성

청소년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저학년 순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도 자녀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성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자위(63.9%), 월경·몽정 등 사춘기 몸의 변화(27.0%)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했으며, 이러한 궁금증은 비디오·잡지 등의 음란물(41.1%), 학교교육(14.1%)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나 부모와 같은 공적인 통로보다 음란물 등을 통해 성을 배워갈 때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보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월경·몽정, 임신과 출산 등 신체·생리적인 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은 반면 교사들은 이성교제, 성충동·성관계 등 학생들 스스로가 경험하는 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38.4%)때 월경과 몽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중학교(46.3%), 고등학교(18.8%)를 거치며 성충동을 처음 느끼게 되고 17.9% 청소년들은 고교생인 현재까지 성충동을 느낀적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교

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성충동을 느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해소방법으로는 학부모들이 운동이나 취미활동(41.2%), 그냥 참는다(22.7%)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자위(25.5%), 음란비디오·서적(24.7%), 운동·취미활동을 들고 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교사가 청소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음란매체(33.7%)나 영화·소설을 통해 성관계장면을 보았을 때(33.4%) 성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며, 그럴 때 참거나(33.1%), 운동·취미활동(13.8%), 음란비디오·서적(11.4%), 자위 등을 통해 해소해 오고 있다.

3. 이성교제

청소년 22.0%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교제가 가능한 신체접촉의 정도는 키스(45.2%), 껴안기(21.4%), 손잡기(12.0%)이고 성관계 갖기도 9.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학부모 52.1%, 교사 69.5%가 키스하기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학부모(67.2%), 교사(75.7%)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찬성하지는 않으나 자녀가 원하면 반대 안한다고 답했고,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직 시기가 이르다, 공부에 방해되거나 성문제 야기에 대한 우려라고 답했다. 조사결과 청소년들과 학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성교제시(청소년) 신체접촉 가능한 범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고, 결국 학부모·교사들은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는 허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교사가 본인이 원하면 이성교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성친구와 손잡고(15.%), 키스하고(14.7%), 껴안기(10.9%)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접촉후 45.7%가 기분이 좋았고, 상대와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들었다는 6.8%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표현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이성교제시 신체접촉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교사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시 기대이상의 신체접촉을 하게 된다면 야단치고 이성교제를 못하도록 권고한다는 강압적인 태도보다 책임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성교육하거나 믿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여 과거에 비해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주고,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서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성교제에 따른 임신에 대하여 학부모 42.0%, 교사 39.1%가 낙태를 권유하겠다고 답했고, 출산을 권유한다에는 학부모 0.8%, 교사 3.3%만이 답하고 있어 생명경시나 낙태에 따른 피해 등만을 조명하기보다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함께 언제나 개인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열악한 복지수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31.1%)나 성충동(7.3%)에 대해 많은 고민을 겪고 있으며, 47.5%가 또래집단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37.8%), 교사(37.9%)도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을 통해 고민을 해결한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부모(0.3%), 교사(0.9%)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가 미미함에 비해 학부모나 교사는 부모나 교사가 그 다음으로 도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교사의 기대와 달리 청소년들은 쉽게, 그들의 문제를 학부모·교사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성교육

청소년의 33.8%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초등학교 고학년(34.0%)이 되어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체육·가정과 교사(84.2%)를 통해 대부분 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은 임신과 출산, 월경·몽정, 남녀신체구조 등 대부분 신체·생리를 중심으로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답한 교육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성교육이 청소년 성욕, 이성교제, 성폭력, 성평등 교육 등 건강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4.0%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자녀에게 성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학부모가 50.4% 인 것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녀에게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고학년때 처음 성교육을 하였으며 대부분 사춘기 몸의 변화, 남녀 신체구조 등 생리적인 교육이 실시되었고 학교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받은 성교육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적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윤리적·도덕적이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

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는 성병과 예방책, 출산·피임, 이성교제, 성심리 등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자로서 필요한 정보로 학부모는 이성교제, 사춘기 몸의 변화, 순결, 성폭력·성희롱이라고 답했고, 교사는 성차별·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성충동·성관계, 성병과 예방책을 들고 있다. 학부모는 개인적 관심에 머무는 반면 교사는 사회성있는 교육에 관심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교사 모두 성교육시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시 청소년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성에 대한 대화후 자녀와 친밀해지고 솔직해지는(24.3%)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학부모·교사 대부분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적절한 성교육자로는 부모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책임도 가정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교육은 어린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성교육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학부모·교사 모두 성교육자로서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성교육정보와 동일하게 답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간 성의식과 청소년들의 성교육,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현재의 청소년 성문화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영향 아래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성인들의 성문화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학부모·교사간 성의식, 성적 행동, 이성교제, 성교육에 대한 방향 등에서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청소년은 성인들이 언제나 따라잡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특수집단으로 그들의 질풍노도와 같은 성장기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막강한 영향속에서 생활하고, 음란물을 통해 배우게 되

는 성의 이미지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짓는데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학부모·교사 더불어 이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기관들은 공적영역에서 쾌락위주의 단편적인 성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를 거쳐 함께 하는 총체적인 성을 보여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결국 새롭게 성에 대해 학습한 청소년들은 기존 성인들의 저변의 성문화를 답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들만의 성문화를 힘있게 살려갈 수 있는 시도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지역사회 청소년·학부모·교사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된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한다.

Reference

- Kwon, Li-jong (1992). *Teenagers and Educational Pathology*. Yang-She-Won.
- Kwon, Hyek-chang (1983). *A Research Study on the Realitie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Sex Knowledge and Sex Education*.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Kim Mi-ju (1997).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of Sex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ung-ju (1996). The Reality of Sex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onthly Bulletin of Education, Issue, 8*, p51-55.
- Kim Eun-ja (1978). *A Study on the Realities of Sex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and Needs for Sex Education According to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in Some College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Yeonsei University.
- Kim Ju-yeon (1993). *A Research Study on Sex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for*

- Some College Student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Kyunghee University.
- Kim Hyun-kyung, Choi Su-jung, Kim Mi-kyung, Yang Kyung-mi, Im Mi-lim (1999). An Analysis of the Research Content of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in Korea. Health Educatio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Society, Issue, 16*(1).
- Kim Hye-ja (1997). How Should Sex Education be Practiced? *Kangwon Education, 155*.
- Nam Myung-hee (1999). An Analysis of the Research Content of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in Korea. *Journal of Local Community Nursing Society, Issue, 10*(1), p. 239-251.
- Park Sun-seon (1993).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Sex Before and After the Conduct of Sex Education to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onsei University.
- Park Young-shin (1988). A Study on Sex Attitud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Some College Student in the College of Education. *Jungang Medicine, 53*(6), p. 396-413.
- Sung Young-ja (1984). *An Analytic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nd Correlational Variables towards Sex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Jungang University.
- Son Ho-eun (1991). *A Study on Film Textbooks for Sex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Cour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Hyosung Women's University.
- An Chang-sun, Kim Hyun-ok, Edited (1991). *Sex Education in School*. Seoul, Educational Science Publisher.
- Yang Sun-ok & Im Mi-lim (1998). An Analysis of Printed Media Materials on Sex Education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Health Nursing Society, 12*(2).
- Yang Sun-ok, Jung Keum-hee, & Baek Sung-sook (1998). Middle School Students' Sex Attitude and Experiences in Kangwon Province. *Journal of Local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9*(2), p. 482-501
- Oh Yun-jung, Kim Jung-nam, & Ha Sook-young (1998). A Research Study on Sex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Som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ocal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9*(2), p. 467-457.
- Lee Kwang-ok, Yang Sun-ok & Im Mi-lim (1998). An Analysis of Visual Media Materials for Sex Education of Adolescents, Focused on Video Materials. *Journal of Local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9*(2), p. 441-457.
- Lee Kyun-eun & Yun Yang-so (1998). A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Sexual Assault in One Local City. *Journal of Local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9*(2), p. 425-457.
- Lee Keun-ho (1996). Social Changes and Sex Education. *Monthly Bulletin of Education, Issue, 8*, p. 44-47.
- Lee Sun-yeol (1991). *A Study on the Practice of the Guidelines for Sex Education Using Books for Sex Education*. Kuro Middle School.
- Lee Young-hee, Park Mi-ra, Song Mi-sook, Yu Jin-hee, Choi Sun-nam, Han Yu-mi, & Hwang Yun-jung (1997).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Focused on One College in Incheon City. *Journal of Korean Nursing Society, 27*(1), p. 26-35.
- Lee Yo-sik, Kim jae-in, Jung Hae-sook, & Yang Ae-kyung (1992). *The Plan for Internalization of Sex Education in the 6th Curriculum*. Seoul Korea Women Development Institute.
- Lee Yun-seun & Lee Keun-hoo (1987). Statistical Observation of the Formation of

- Sex Attitude and Its Importance in Adolescence. *Psychoneurological Medicine*, 26(1).
- Lee In-ja (1994). *A Research Study on Sex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for Some College Students*.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Yonsei University.
- Im Mi-lim (1996). A Research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x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Nursing Science*, 8(2), 201-212.
- Chun Kwang-mun (1983).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ex Problem in Korean Adolescents*. Report of the Seminar on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ung Ah-young (1991). *An Investigation of High Schoolgirls' Knowledge, Attitude and Interest towards Sex*.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Chungnam University.
- Ha Sook-young & Kim Jung-nam. An Effect of Sex Education on Middle Schoolgirls'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Journal of Local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10(1), p. 227-238.
- Han Yu-hung (1997). *An Effect of Sex Edu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Chunnam University.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2). *Human Sex*, Hak-Soo-Sa.
- Evelina Menez Mendoza (1972). *Sex Misinformation of Teachers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of Caloocan City and Their Implications of to Health Educ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45-150.
- Harrison, J., Glass, C. A., Owens, R. G., & Soni, B. M. (1995).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functioning in women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Paraplegia*, 33, 687-692.
- Hayter, M. (1996). Is non-judgemental care possible in the cotext of nurses' attitudes to patients' sexualit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 662-666.
- Hurlock, E. B. (1973).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Abstract -

A Research Study on the Sexual Awareness of Teenagers, Their Parents and Teachers in an Urban Area

Lim, Mi Lim · Yang, Soon Ok**
Lee, Kwang Ok****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1) To identify the level of sexual awareness and demand for sex education of teenagers, their parents and teachers.
- 2)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and acceptance of heterosexual friendships by teenagers, their parents and teachers.
- 3) To identify the experience and direction of sex education of parents and teach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341

*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Dongwoo University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male and female teenagers at three high schools located in a city, 119 parents with high school students and 243 elementary/middle/high school teachers.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each of them and returned by them. This study was conducted over the period between June 1, 2001 and Aug 31, 2001. A total of 7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m and 703 were return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o obtain percentage and frequency using the SAS pro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Parents and teachers showed a similar attitude about sexual awareness, but teenagers showed a different attitude. In terms of the level of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were comfortable in accepting it. As for sexual curiosity in puberty, 84.8% of the parents and 95.5%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whereas only 14.7% of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But As for the item that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3.6%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only 1.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As for the item that 'A man has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a woman', 6.1%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17.3%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64.2% of the teenagers and 90.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im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whereas only 8.4% of the parent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As for

the item of masturbation, 64.5% of the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for male students and not possible for female students. 67.2% of the parents and 91.1%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regardless of sex.

As for the item of an attitude toward virginal purity, both the parents and teachers showed that virginal purity was important for both man and woman, but teenagers showed a weak awareness of virginal purity. As for the item, 'It is possible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a lover during adolescence', 20.2% of the teenagers, 79% of the parents and 87.7%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impossible. As for the item 'It is necessary to keep premarital virginal purity for a happy married life', 21.1% of the teenagers, 74.8% of the parents and 55.1%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which shows that teenagers had a different opinion than parents and teachers.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most of the responding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chose abortion.

As for the item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respondents accepted female refusal as they did for orders of teachers, parents and adolescents. As for item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all of three groups responded in the affirmative.

Key words : Teenager, parent, teacher, sexual Awareness